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선정

배종옥 · 최수영 배우 · 신예 이충현 감독 등 경쟁부문 · 넷팩상 심사위원 14명

‘영화는 계속된다’는 슬로건과 함께 오는 4월 29일 개막하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감독과 배우, 프로그래머, 평론가, 제작자 등 다양한 국내외 영화인들로 구성된 경쟁부문과 넷팩(NETPAC)상 심사위원 총 14인을 선정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주요 영화계 인사들과 패기 넘치는 신진 영화인들을 심사위원으로 두루 구성해 전문성과 참신함이 돋보인다. 먼저 국제경쟁에서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바나칼루제르치치 집행위원장, <질투는 나의 힘>(2003)부터 <결백>(2020)까지 다채로운 배역과 장르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종옥 배우,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칸 영화제 초청작 <백일영화>(2014)와 <와일드 구스레이크>(2019)를 제작한 선양, <프리덤>(2019)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알베르 세라 감독, 홍상수 감독의 <생활의 발견>(2002)부터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 등의 이한나 프로듀서가 참여해, 전세계 전도유망한 신인 감독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0편의 반짝이는 한국영화들을 선보이는 한국경쟁에서는 현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이자 영화 <헐너: 칼의 기억>(2015) 등을 연출한 박홍식 감독과 로스앤젤레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의 키바 리어든 프로그래머, <레몬 공장 소녀>(2013)의 연출자이자,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MUBI)’의 콘텐츠 디렉터 키아라 마라논이 나서 각자의 시선으로 심사에 나선다.

25편의 작품이 본선에 오른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는 케백시티영화제 프로그래밍 디렉터 로라 로하드, 박신혜, 전종서 주연의 스릴러 영화 <굴>을 연출한 이충현 감독, 영화 <결갑스>(2019)와 <새해전야>(2021), 전주국제영화제를 무대로 삼았던 드라마 ‘런 온’(2021)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

을 바탕으로 연기 스펙트럼을 내달리 확장하고 있는 배우 최수영이 선정됐다.

한편, 비경쟁부문에서 상영하는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아시아영화진흥기구(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 NETPAC)가 시상에 내서는 넷팩(NETPAC)상은 3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부산국제영화제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 변성찬 평론가, 장편 다큐멘터리 <프리 레디캡스: 실험영화의 역사>(2011)의 필초도르프 감독이다.

올해 영화제에 초청된 심사위원들은 영화제 기간 중 전주를 찾아 심사를 진행하되, 해외에 거주하는 심사위원들은 별도의 초청을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 심사로 대신한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오프라인 상영을, OTT 플랫폼 웨이브(www.wavve.com)에서 온라인 상영을 실시하며, 대담과 토크 프로그램 등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제공된다. /양은경 기자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발표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회장 이정우)가 주관한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대상은 박만기 작가의 ‘3단 혼수함’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남원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접수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7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심사위원(6명)이 공개 모집된 일반인단의 참관으로 옷칠, 같이, 디자인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심도있게 심사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박만기 작가의 ‘3단 혼수함’은 전통공예의 제작과정과 기법을 충실히 재현하였으며, 특히 주철에서 가장 어려운 색감의 발색이 동일하게 잘 표현되었고, 마감처리도 완벽에 가까웠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장식의 비례나 조금(彫金)의 정교함도 공중의 품위를 엿볼 수 있게 잘 표현된 수작으로 평가됐다.

옷칠목공예부문의 금상은 조현영 작가의 ‘서안’으로, 수려이 오래된 느티나무 용목을 사용해 수차례 옷칠로 마감 화려하지 않으며 검소하고 단아한 서안의 특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같이부문 금상은 이주섭 작가의 ‘달항아리 반상기’는 여러 개의 목기가 층층이 쌓여 하나의 항아리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형태를 분리해 하나하나 그릇으로 사용하게 제작, 실용성과 심미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정림 심사위원장(동아대 명예교수)은 “목공예를 핵심으로 한 유일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의 수준이 뛰어났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진정신에 대한 일념으로 한국의 옷칠 목공예 발전을 위해 출품해준 작가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예인”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수상작품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남



대상 박만기 작가 '3단 혼수함'



옷칠목공예부문 금상 조현영 작가 '서안'



같이부문 금상 이주섭 작가 '달항아리 반상기'

원, 서울, 전주 등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모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감·공유 장영애 개인전 gallery숨서 열린다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장영애 개인전이 4월 19일~5월 1일까지 gallery숨서 열린다.

장영애 작가 노트에 따르면 “공간에 들어 서자, 빨간 장미꽃의 매혹적인 향기로움에 이끌렸다. 어느 틈에 나는 장미꽃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손을 뻗어 만지려는 순간, 아찔한 고통과 함께 붉은 피가 흘렀다”

장미꽃이 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과 다가가 장미에 손을 뻗어 만지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 장미와 나의 소통 ‘방법’이라면 향기로움과 고통스러움은 장미꽃과 나의 소통 ‘결과’이다. 나는 장미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소통 방식을 통해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 냈고 그 결과를 통해 장미꽃의 이미지를 기억 속에 ‘감각’으로 저장한다. 감각은 소통 후의 침전물이지만, 감각의 내용은 소통방식의 따라 달라지며, 감각을 통해 소통이 재정의 되기도 한다.

소통이 SuperHappy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면, 감각은 소통의 연속성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감각은 기억을 상기시키고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게 하며 미래의 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의 또 다른 소통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SuperHappy가 일상 속 삶의 과정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행복이라면, 가속화된 삶의 과정 속에서 지나쳐버



린 기억을 소환하고 상기시킬 단서가 필요하다. 감각은 삶의 속도를 줄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나와 타인을 응시하게 할 수 있는 단서이다.

모든 소통은 옳다. 하지만 소통이 끝난 후에 다음소통도 옳을 것인가, 소통 후 남겨진 것이 장미의 향기인지 고통인지를 응시하고 감각하는 것은 연속된 오류를 없애고 미래 나의 태도의 방향을 결정한다. 진실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감각은 타인과의 소통임과 동시에 나의 현재와 미래의 소통이다. 내가 감각한 것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시한다면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될 것이다.

철학자 한병철은 ‘시간의 향기’라는 책에서 우리는 현재 향기가 없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말한다. 향기로움 시간은 느리고, 서사적이고, 사색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우리의 시간은 가속화 하고 있고, 자신만의 증력을 갖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흩어진 원자처럼 떠돌다 불시에

끝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감각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만나게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나를 결정하여 나의 본질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향기 나는 시간을 살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감각은 지속가능한 행복, SuperHappy를 위한 소통의 중요한 조력자이다.

지난 전시 SuperHappy-communication에서 소통의 의미와 매개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면, 그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이번전시는 소통의 결과로 남겨졌던 감각에 시선을 두었다. 감각이 소통 후의 주관적인 침전물이라면 나와 타인이 갖는 감각은 응답 다를 것이다. 너와 나의 ‘장미의 아름다움’이 언어적으로 갈을 수는 있겠지만, 각자의 감각으로 남겨진 질량과 부피와 그 정도가 절대 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작업에 앞서 여러 사람의 기억 속 사실과 감정들을 수집했다. 수집과정에서 다양한 연립대, 성별, 직업별 다른 삶 속에서 개인의 행복감, 기쁨, 성취감, 편안함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과 조우했다. 특히 길어진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각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전시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치치고 건조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고 각자의 감각을 상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장영애 작가는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 미술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도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5월 11일까지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는 전라북도 곳곳을 여행하며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급자 위주의 관광 홍보를 대신해 참여자가 전라북도 관광지를 직접 체험해 홍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모집대상자는 전라북도 외 거주지로서, 만 18세 이상 전라북도 여행 희망자 중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행 작가,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를 우대 선정한다.

참여자는 최소 7일 이상 기간 동안 ▲1일 기준 숙박비 5만원(최대 20일), ▲입장료 및 체험비 총액 5만원, ▲여행자보험비 총액 2만 5,000원을 지원받아 여행하며, 주 3회 이상 본인 SNS에 여행후기, 체험사진 등을 게재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참여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



서 신청서와 여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river@jb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